

新春과 卒業生

吳 官 守

一年三百六十五日是기야 누말하리 맛가솔은우리人生되는것이恨이로다. 겨울가고봄이오나 온누리는뜻빛이네
 뜻업는山들에도 뜻피는봉이올제人間의世上인들엇지봄업슬소나 그러면우리의게는 무슨봄이와는가? 눈물파한
 송파바람과비와 몇해를차우다가 괴여하勝利者가되며 榮華의積功으로 業을맛치고交光의月桂冠을이던卒業生
 諸君일것이다. 해마다오는봄에 어느나라이든人間社會를勿論하고 卒業生이업스리요만은 더구나朝鮮學生! 그
 中에도우리佛敎界에서 曠사람의健兒音産出케되는 그야말로『萬緣叢中一點紅』이란 한句節의뜻을귀를 업주리지안
 을수업다 願하오니業을맛친諸君이여! 朝鮮을爲하야 朝鮮人을爲하야 強土를爲하야 歷史를爲하야 도한우리
 佛敎를爲하야 國魂일군이되여주기를바리며 길이健康함을빌고 봉을이예서근친다.

卒業祝賀를 받고

李 智 英

최도卒業이리고요? 그를祝賀한다고요! 참으로當하고보니 曲馬團에初演하는 외줄라는少女의가슴것습니다
 잊차하면 櫻이최生命을備앗기고 이어서團員의羞恥를기치겠지요? 여러분이團員이겠지요? 祝賀の本意가奈邊
 에잇슴을말았습니까. 부대! 하고一回二回八回나 여러분과갓치 卒業을祝賀하며보냈었지요 九回만에 그付托
 그대로自身이질머지고 여러분의祝賀를 아니做命을맛게되는 최의마음은 비로소先輩兄弟들의 悼惜은心情의一
 端을咀嚼하게되였습니다. 昨年卒業祝賀式場에서『期待를마라다고』하든 先輩들의苦情이 얼마나큰가 도只今
 사根源을알게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찾아그말이야 告할만한勇氣가업습니다. 그러라고여러분의付托을如

實이를넘어사遂成할만한自信이確立한것도 勿論아니외다 그르면무엇이겠슴닛가? 精進! 不退! 두가지!
 此所謂 積極的任運主義. 이것뿐이외다 過然이것의從來信操였스며 當來支柱이겠습니까 任運主義라하니
 무엇이던지宿命觀에매기고 自立的計劃이업지안느냐 疑心할는지물으겠슴니다만은 그야말로消極的任運主義일것
 이외다 任運이라하보다放任이되겠지요 지가信條로支柱로삼는다는積極的任運主義로말하면 但有精進이인정不
 成. 觀望이외다 다시말하면 天職을向하야最後外지努力할뿐이요 成功與否나報需有無는掛念치안다는말이외다
 例하면來日死門에든다할지라도今日努力을맛가워하지안을것이며 今日失敗라할지라도昨日苦楚를後悔하지안다는
 말이외다 配運天飭商으로中學을나와서 半分補助업난놈이 月平均七八拾圓의大金을要하는醫專에志願하든그대를
 回顧할때에 어느親戚의게다유과것을忠告라할가皮肉이라할가贅言을맛었습니까 「君의志望은巨大妄想에不過하니中
 道失敗에後悔하지말고可能인空想은버리난것이올라」고. 勿論可能性이최인것은 亦是모르난바는아니였습니다
 만은 오직最後外지努力이잇솔뿐이요卒業如何난豫期하지안었습니다 自我의希望에산다는것의 무엇보다幸福이라
 하면 來日失敗라할지라도오날까지는幸福일것이외다 따라서中道如何난念頭에두지도안었스며失敗하였다하드레도
 後悔하지안을것이외다 成不成만은自然에맡긴다는말이외다 因果哲理로記述할슈도잇솔줄입니다 이것이此所謂
 的積極的任運主義라하는것이외다. 同志들이여! 此大膽의目標합니다 또다시巨大妄想을目標삼아 나
 가있다고 맛찬가지로成敗는生置치안습니다 그최最後外지精進이잇솔뿐입니다 病苦衆生을爲하야 그렇지만安
 慮를늘들기에 최이도只今부터十年間基礎工事に精進하려합니다. 善한중 돌한個라도扶役하야주실이란 오직同志
 여러분이잇솔뿐입니다 過去도그려해든 未來인들커바리지안을줄을맛게잇고잇습니다 曲馬團의줄라는少女格인
 自身도 뜻업지操心하거나와團員되신여러분의心感도 如干크지안을줄입니다 그만심監視하야주시고 그만良心
 하야주신다면 次로妄想에만근치지안을確信합니다. 하면됩니다自信만은過去지후에 彼此의體験하야왔는外하의
 외다. 同志들이여! 學窓을떠나는君의盟誓가이것이며 付託이이것이외다 精進! 監視!(一九五六年三月五日)